

‘佛 축구’ 박주영도 터졌다

53일만에 시즌 4호골…팀 3연패 탈출

박주영(24·AS모나코)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에서 시즌 4호골을 터뜨렸다.

박주영은 17일(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2세 경기장에서 열린 스타드 렌과 정규리그 홈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전반 20분 선제골을 뽑아 1-0 승리에 앞장섰다.

골문에서 멀리 펼어진 프리킥 기회를 순간에 드롭으로 연결한 기습적인 골이었다. 박주영은 왼쪽 미드필드에서 네네가 올린 프리킥을 폐널티지역 왼쪽 모서리에 있던 세바스티안 피그레니에가 백해딩으로 떨어뜨리자 폐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달려들며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해 네트를 갈랐다.

박주영의 득점포는 지난 10월 25일 볼로뉴와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이후 53일 만에 터졌다. 다섯 경기 만에 보는 골맛이며 시즌 4호다.

박주영은 전반 중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전반 17분 프랑소와 모데스토가 폐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올린 크로스를 수비수를 달고 뛰어올라 헤딩했으나 볼은 아쉽게도 크로스바 위로 벗어났다. 선제골을 터뜨린 뒤인 전반 33분에는 역습 찬스에서 폐널티지역으로 쇄도하는 네네에게 스루패스를 전달했으나 간발의 차로 골키퍼의 손에 걸리고 말았다.

박주영은 후반에도 8분 만에 미드필더에서 날아온 긴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설 기회를 잡았으나 상대 수비수의 태클에 걸려 코너킥을 얻는 데 만족했다.

후반 35분에는 미드필더에서 전달된 패스를 폐널티지역 왼쪽에서 잡아 강한 슈팅까지 날렸지만 빗맞은 뒷에 볼은 골문을 벗어났다.

스타드 렌은 후반 중반 이후 모나코를 거세게 몰아붙였으나 끝내 골문은 열리지 않아 박주영의 득점이 그대로 결승골로 굳어졌다. 모나코는 이날 1-0으로 이겨 지난달 1일 보르도전 이후 1무4패를 기록하다가 6경기 만에 승리를 낚았고 최근 3연패 부진도 털어냈다.



프랑스 프로축구 AS 모나코의 박주영이 17일(한국시간) 모나코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스타드 렌과의 홈경기에서 골을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풀타임을 뛴 박주영은 경기종료 직전인 후반 추가시간 막판 상대 골키퍼의 킥을 방해하면서 시간을 끈 것으로 판정돼 경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내년 남아공서 세차례 평가전

1월9일 잠비아와 A매치 등 총 6차례 월드컵 모의고사



이어 21일에는 오후 11시30분 같은 스타디움에서 라트비아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23일에 벌일 평가전 상대와 경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비 명단 35명을 발표한 대표팀은 오는 26일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이틀간 체력 테스트와 자체 연습 경기를 갖고 최종 전지훈련 멤버 25~26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지 명단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프랑스 무대에서 뛰는 박주영(AS모나코) 등 유럽과 전원이 빠진 채 국내 K-리거와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구성됐다.

이 일정에 따르면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월9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11시 30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란드스타디움(사진)에서 잠비아와 첫 평가전을 갖는다.

국제축구연맹 랭킹이 84위인 잠비아는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C조에서 1승2무3패로

알제리에 밀려 본선 진출권을 놓쳤다. 한국(FIFA 랭킹 52위)과 역대 A매치 상대전적은 두 차례 맞붙어 1승1패를 기록했다.

12일 자정 러스滕버그의 로열바포킹 스타디움에서 남아공 프로팀인 플래티넘 스타스와 연습경기 치르고 14일 오후 6시에는 포트엘리자베스 벨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프로팀인 베이 유나이티드와 맞붙는다.

남아공에서 현지 적응을 겸한 단기집을 하

고 15일 말라카로 넘어가는 대표팀은 스페인에서도 세 차례 평가전을 계획하고 있다.

18일 오후 11시30분에는 말라카의 에스타

디오 키우다드 스타디움에서 빈란드와 A

치를 벌인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둔 축구 대표팀이 내년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전지훈련 기간 평가전 일정을 확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7일 “내년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세 경기, 스페인 말라카로 이동해 세 경기 등 총 6차례 평가전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일정에 따르면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월9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11시 30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란드스타디움(사진)에서 잠비아와 첫 평가전을 갖는다.

국제축구연맹 랭킹이 84위인 잠비아는 월

드컵 아프리카 예선 C조에서 1승2무3패로

18일(금)

박지성 유럽올스타 선정

22일 지단과 함께 친선경기

박지성(28·맨유)이 은퇴한 프랑스 축구 스타 네딘 지단 등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인종 차별에 반대하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아이돌로컵’ 홈페이지(idolcup.it)에 따르면 박지성은 오는 22일 오전 4시30분(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릴 유로파 팀-아프리카팀 간 친선경기에서 유로파팀 미드필더로 출전한다.

이번 대결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과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각각 한 팀을 이뤄 펼쳐지며, 박지성은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참가한다.

박지성은 네덜란드 PSV에 인트로벤 소속이던 2005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쓰나미 난민돕기 친선경기에서 차두리(당시 마인즈)와 함께 세계 올스타팀(호나우두11) 멤버로 뽑혀 유럽 올스타팀(申博코11)과 맞섰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과 조별리그를 벌일 나이지리아 대표팀의 존 오비 미켈(첼시)도 아프리카팀 선수로 편된다.

/연합뉴스



‘피겨퀸’ 김연아

곰인형 나온다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이달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린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경기를 마친 뒤 집어들어 화제가 됐던 곰인형이 판매된다.

캐릭터 전문업체인 두원엔터테인먼트와 한국테디베어협회는 김연아의 매니저먼트사인 IB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하고 김연아 곰인형과 캐릭터 의류를 1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랑프리 파이널 당시 김연아가 쇼트 프로그램 연기를 펼친 날에는 쇼트프로그램 의상을, 프리스케이팅에 나선 날에는 프리스케이팅 의상을 똑같이 입고 김연아의 품에 안긴 채 키스 앤크라이 존에서 역전 우승의 순간을 함께했던 이인

형은 대회가 끝난 뒤 ‘연아 곰인형’이란 예칭까지 얻으며 화제를 모았다.

두원엔터테인먼트는 이 인형이 “한국 테디베어협회 원명회 회장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 주문만 받을 계획이었지만 판들의 요청이 쇄도해 바로 시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쎈돌의 귀환’ 이세돌 17일 복직원 제출

‘풍운아’ 이세돌이 국내 바둑계에 복귀한다.

장기휴식 중이던 이세돌 9단은 17일 친형 이상훈 7단을 통해 한국기원에 복직원을 제출했다.

이세돌은 사무국에 낸 복직원을 통해 ‘휴식하게 된 일신상의 사유가 해결되어 복직을 신청하게 됐다’고 복직 이유를 밝혔다.

한국기원은 이세돌이 복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내년 1월8일 열리는 제89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세돌의 복귀 여부를 결정했다.

휴직 전까지 세계랭킹 1위를 지켜오던 이세돌의 복귀 의사를 한국기원 이사회가 거부할 가능성이 허박해 이세돌은 내년 1월11일부터 열리는 제2회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F1 황제’ 슈마허

복귀 내년에 결정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40·독일)가 내년에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에서 7번이나 종합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슈마허의 현역 복귀설이 나도는 가운데 그를 영입할 팀으로 거론되는 메르세데스가 17일 “팀의 두 번째 드라이버를 2010년 초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2010시즌에 출전할 두 명의 드라이버 가운데 한 명은 이미 니코 로즈버그(24·독일)로 결정한 메르세데스는 “누가 우리 차에 가장 잘 맞는 드라이버인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스폰조 출제

18일(금)

▲제14회 삼성하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전(14:10·KBS1)

▲농구대잔치(중앙대·연세대)(16:50·SBS스포츠)

▲09/10 프로농구(동부·삼성)(18:50·MBC ESPN)〈모비스·오리온스〉(19:00·SBS스포츠)

▲2009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준결승(프랑스·스페인)(19:20·KBS n스포츠)〈노르웨이·러시아〉(22:00·KBS n스포츠)

18일(금)

▲제14회 삼성하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전(14:10·KBS1)

▲농구대잔치(중앙대·연세대)(16:50·SBS스포츠)

▲09/10 프로농구(동부·삼성)(18:50·MBC ESPN)〈모비스·오리온스〉(19:00·SBS스포츠)

▲2009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준결승(프랑스·스페인)(19:20·KBS n스포츠)〈노르웨이·러시아〉(22:00·KBS n스포츠)

18일(금)

▲제14회 삼성하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전(14:10·KBS1)

▲농구대잔치(중앙대·연세대)(16:50·SBS스포츠)

▲09/10 프로농구(동부·삼성)(18:50·MBC ESPN)〈모비스·오리온스〉(19:00·SBS스포츠)

▲2009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준결승(프랑스·스페인)(19:20·KBS n스포츠)〈노르웨이·러시아〉(22:00·KBS n스포츠)

18일(금)

▲제14회 삼성하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전(14:10·KBS1)

▲농구대잔치(중앙대·연세대)(16:50·SBS스포츠)

▲09/10 프로농구(동부·삼성)(18:50·MBC ESPN)〈모비스·오리온스〉(19:00·SBS스포츠)

▲2009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준결승(프랑스·스페인)(19:20·KBS n스포츠)〈노르웨이·러시아〉(22:00·KBS n스포츠)

18일(금)

▲제14회 삼성하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전(14:10·KBS1)

▲농구대잔치(중앙대·연세대)(16:50·SBS스포츠)

▲09/10 프로농구(동부·삼성)(18:50·MBC ESPN)〈모비스·오리온스〉(19:00·SBS스포츠)

▲2009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준결승(프랑스·스페인)(19:20·KBS n스포츠)〈노르웨이·러시아〉(22:00·KBS n스포츠)

18일(금)

▲제14회 삼성하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전(14:10·KBS1)

▲농구대잔치(중앙대·연세대)(16:50·SBS스포츠)

▲09/10 프로농구(동부·삼성)(18:50·MBC ESPN)〈모비스·오리온스〉(19:00·SBS스포츠)

▲2009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준결승(프랑스·스페인)(19:20·KBS n스포츠)〈노르웨이·러시아〉(22:00·KBS n스포츠)

18일(금)

▲제14회 삼성하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전(14:10·KBS1)

▲농구대잔치(중앙대·연세대)(16:50·SBS스포츠)

▲09/10 프로농